

“일부 신라불상 조성연대 추정 잘못”

박흥국 위덕대 연구실장 “三道 유무 편년기준 근거”



◇600년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구황동 3층석탑 출토 금제여래입상(국보 80호, 사진 왼쪽)과 706년 조성된 금제여래좌상(국보 79호, 오른쪽). 삼도는 이 사이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칠불암 마애석불 등 시기 앞당겨 봐야

문명대 교수 “3도가 절대적 기준 못돼”

사지 3층석탑의 사리장엄구에 표현된 사천왕상에 비해 훨씬 고식(古式)인 점을 들어 적어도 682년 이전에 조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신라 불상에 삼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680~706년 사이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박 실장은 삼도의 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통일신라 불상 중 삼도가 없는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국보 201호, 통일신라 7세기 후반)과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보물 200호, 통일신라 8세기), 영주 신암리 마애삼존석불(보물 680호, 통일

신라 7세기 후반)은 그 조성시기를 올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삼국시대 신라 불상 중 삼도가 있는 군위 삼존석굴삼존불(통일신라 7세기 후반)과 경주 안압지 출토 금동여래삼존좌상(7세기말) 등은 현재의 편년보다 다소 늦추어 봐야 한다.

박 실장은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 목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로 삼도가 삼국말-통일초기 신라 불상 편년에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680년 이후의 불상에 삼도가 없는 경우 조성 시기를 올려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불교조각 전문가인 동국대 미술학과 문명대 교수는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없는 경우 불상의 시대 편년은 수인, 보관, 광배, 상호 등의 형식과 양식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삼도의 경우도 유행이 그렇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상에 손을 대지 않는 당시 풍습으로 볼 때 후대에 삼도를 새겨 넣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질(2)

신라인의 금지

경주 분지의 중심, 그곳에는 황룡사가 있다. 동쪽에는 명활산, 서쪽에는 선도산, 남쪽에는 남산과 남산, 북쪽에는 소금강이 둘러싸고 있다. 그렇다고 답답하게 막힌 공간이 아니라, 남북으로 길쭉하게 펼쳐진 평야와 동해 바다에서 연원한 동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다. 이 터는 원래 궁궐을 짓기 위해 마련한 곳인데, 황룡(黃龍)이 나타나는 바위에 사찰로 바꾸었다고 한다. 도대체 황룡이 무엇인가에 궁궐을 사찰로 변경한 것일까? 아마 신라인들은 황룡이 출현하였다는 경우 조성 시기를 올려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 다만 고구려 사찰에서는 3금당이 탑을 향해 ㄷ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반면, 3금당이 남쪽의 입구를 향해 일렬로 서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배치는 634년에 창건된 분황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 분황사는 탑을 중심으로 금당이 둘러싸고 있어 ‘品’자 모양을 한 1탑 3금당식이지만 양쪽의 금당은 탑을 향해 있는 고구려 사찰과 달리 황룡사처럼 정면을 향해 있다. 고구려의 3금당 공간은 폐쇄적인 반면 신라의 3금당 공간은 개방적인 것이다. 황룡사 금당에서서 황하게 열린 정면인 남쪽을 바라보면, 왼쪽의 남산과 오른쪽 남산이 양상불을 이루고 있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경주분지의 형세로 볼 때, 남쪽을 향해 열린 것은 지세를 살린 배치라 할 수 있다. 고구려의 1



◇황룡사 모형. 마당에 9층목탑이 우뚝 서 있고 그 뒤에 3채의 금당이 정면을 향해 서있는 1탑 3금당식 배치이다.

임금 권위 상징 황룡사... 3금당 개방적 높이 80m 9층목탑 이웃나라 진압 겨냥

고도 표기하였다. 이 명칭들에서 알 수 있듯이 황룡사는 신라의 중심사찰이자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찰이다.

황룡사는 진흥왕 때인 553년에 창건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중건과 중창이 이어졌다. 574년에는 장유존상(丈六尊像)을 만들고 10년 뒤인 584년에는 이 불상을 안치할 금당을 세웠다. 선덕여왕 시절인 645년에는 금당 앞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탑인, 약 80m 높이의 9층목탑을 조성하였다. 또한 통일신라에 들어서서 경덕왕 때인 754년에는 성덕대왕신종보다 4배나 큰 황룡사종을 만들고 이 종을 건 중무와 경을 보관하는 경우를 탑과 중무 사이에 건립하여 황룡사의 면모가 완성된다.

그런데 금당과 탑의 배치는 고구려 사찰의 전형적 배치인 1탑 3금당식을 따르고 있

다. 다만 고구려 사찰에서는 3금당이 탑을 향해 ㄷ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반면, 3금당이 남쪽의 입구를 향해 일렬로 서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배치는 634년에 창건된 분황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 분황사는 탑을 중심으로 금당이 둘러싸고 있어 ‘品’자 모양을 한 1탑 3금당식이지만 양쪽의 금당은 탑을 향해 있는 고구려 사찰과 달리 황룡사처럼 정면을 향해 있다. 고구려의 3금당 공간은 폐쇄적인 반면 신라의 3금당 공간은 개방적인 것이다. 황룡사 금당에서서 황하게 열린 정면인 남쪽을 바라보면, 왼쪽의 남산과 오른쪽 남산이 양상불을 이루고 있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경주분지의 형세로 볼 때, 남쪽을 향해 열린 것은 지세를 살린 배치라 할 수 있다. 고구려의 1

황룡사의 길작은 역시 중앙에 우뚝 솟은 9층목탑이다. 선덕여왕은 여왕이라 멸시하고 침략을 일삼는 이웃나라를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거대한 탑을 세웠다.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선덕여왕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대종은 남편이 없는 선덕여왕을 업신여겨 항기 없는 모란꽃그림을 보내었는데, 선덕여왕은 당대종을 향해 시위하듯 꽃향기가 나는 임금의 절이라는 뜻의 분황사를 짓기도 했다. 황룡사9층목탑은 아쉽게도 고려시대 풍고 침입 때 불타 없어졌다. 그러나 이 탑은 황룡사의 중심이면서도 경주의 중심이고, 선덕여왕의 자존심인 면서도 신라인의 금지로서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원측 스님 사상 엇갈린 견해

기츠카와 박사 통설 부정... ‘오성각별’ 주장

정영근 교수 ‘원측은 일체개성론자’ 반박

똑같이 현장(622~664) 밑에서 수학했으면서도 기츠카와(632~682)와는 다른 유식 사상을 체계화한 신라출신 원측 스님의 사상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 조짐이다.

원측 사상의 특징은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일체개성(一切皆成)’에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 그러나 원측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기츠카와 도모아키 박사(일본 동양대)는 지난해 보조사상연구회 41차 학술발표회에서 “원측은 현장과 규기에 의해 확립된 중국 법상종(法相宗)과 마찬가지로 ‘결코 성불하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고 하는 오성각별(五性各別)을 주장하였다”며 기존 통설을 뒤엎었다.

그때 토론자로 나왔던 정영근 교수(서울산업대)는 최근 발간된 <불교학연구>(불교학연구회, 반년간) 제5호에 다시 이를 논박하는 논문을 실고 원측은 일체개성론자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혜소가 원측계 교학을 비판하기 위해 쓴 <성유식론의등(成唯識論義疏)>에 원측이 일체개성론자라는 지적과 논박이 없다.”(기츠카와)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있는 원측의 주장을 논박하는 대목이 나온다. 원측이 ‘오성각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정영근)

◇“<유가론기(瑜伽論記)>에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는 현장의 신역 경론을 정설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구절이 나온다.”(기츠카와) “글 읽기의 잘못이다.”(정영근)에 나오는 ‘실유불성(悉有佛性)’만을 정설이라고 하는 경전 해석의 편협한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읽어야 한다. 또한 앞부분 패에서 해석할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능가경> 구절을 제시한 다음 부분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 문맥의 보다 분명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정영근)

최연식 씨 주장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인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장천1호분(5세기 중기) 전실의 계단식 천장 벽화는 도술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연식(서울대 강사)씨는 최근 발간된 <강좌한 국고대사>(전 10권) 시리즈 중 <고대인의 정신세계>에 기고한 논문에서 “장천1호분 고분벽화에서 연꽃 위로 두 사람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연화광도는 기 존 견해처럼 주인공 부부 가 정토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정



◇장천1호분 전실 왼쪽 벽면에 그려진 ‘연화화상도’. 머리 위에 둥근 원이 선명하다.

그린 것이라면 12절이나 그렸을 리가 없으며 △연꽃에서 태어나는 존재의 머리 위에 천신과 마찬가지로 둥근 원(두광)이 그려져 있는 점 △예불도의 장면 등 전실 벽화의 내용이 도술천을 묘사하고 있는 <미륵상생경>의 서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씨는 “5세기 중엽에는 도술천 왕생에 대한 인식이 고구려 사회에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구려 고분 장천 1호분 천장벽화 도술천 형상화”

정토에서 천인 태어나는 모습

고 있는 <미륵상생경>의 서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씨는 “5세기 중엽에는 도술천 왕생에 대한 인식이 고구려 사회에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궁무진한 우리 전통문양을 집대성한 한국의 美 『무늬』

사진·안장현 / 글·이기선



문화재 사진작가 「안장현」의 섬세한 영상과 불교조형연구소 소장인 「이기선」의 유려한 예술이 돋보이는 한국무늬의 집대성

무늬에 관한 책이라면 지금까지는 무늬를 그림으로 옮겨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책은 무늬가 배워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원형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그야말로 조금도 변형되지 않은 무늬의 원형적인 책이다.

오늘날 각종 산업과 문화는 디자인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문화를 응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따라서 이 책은 미술사자들은 물론 종교인, 디자이너, 문화 애호가들에게 단비 같은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원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특징

- 1) 무늬를 있는 그대로 살린 원색 사진
- 2) 충실한 자료는 답사와 연구의 길라잡이
- 3) 258페이지에 수록한 총 308컷의 풍부한 도판
- 4) 최대한 한글화한 무늬 용어
- 5) 쉽게 풀이한 무늬의 발생과 상징성

4X6 변형배판 스노우 화이트, 총 256쪽
정가 28,000원



저를 감을 거머 타는 꽃기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리는 호사가 아닌가, 더구나 무늬 가를 지키고 있는 망주석이나 장명등에도 무늬는 배풀어져 있다. 이렇듯 무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인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문양 작품들에 담긴 선조들의 정인 혼을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역시 정인의 정신으로 카메라 렌즈와 초점을 통해 일치시키고자 했던 저자들의 노고가 잘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의 전통 무늬에 깃들여 있는 창조적 정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새로운 무늬의 창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부디 이 책이 출간됨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해맑게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원배(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호영출판사 TEL 02-3442-5131 FAX 02-511-1882